

〈성경칼럼 요한복음 여섯번째 : 38년된 병자의 의미〉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자신의 일 처럼 생각하고 오지랴 (남의 일에 상관하는 것으로 이해)을 띤다. 그래서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을 놓치고 쓸데 없는 것에 시간을 보낸다.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38년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사건을 이해하는 우리 신앙인의 태도가 바로 그렇다. 무엇을 말하려는지 한번 들여다 볼까? 내 견해에 반드시 동의 할 필요는 없다.

요한복음 5장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모른다고 할 수 없는 38년동안 누워있던 병자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물론 그만 누워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요 5:3) 예수님께서 특별히 만나 주신 것을 볼때 아마도 가장 오랜동안 그곳에서 누워 치유 받기를 바라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요 5:6) 예수님은 그를 고치셨고 그는 즉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 갔다. 그후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를 다시 만났고 권면하시기를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다. (요 5:14)

문제는 이제부터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 그 말씀을 들은 후에 그는 즉시 유대인들에게 찾아가 자신을 고친 사람이 성전 안에 있는 예수라고 말해 주었다. 이것을 두고 어떤 학자들은 예수를 배반 했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를 증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찌보면 예수를 배반한것 처럼 보이기도 한다. 왜냐하면 9장에 나오는 날때부터 맹인된 자는 고침을 받고도 예수가 어디있는지는 밝히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요 9: 12) 예수님은 왜 이렇게 유대인에게 고발할 사람을 고쳐 주었을까? 그가 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를 믿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 반면에 바로 전에 고침을 받은 왕의 신하의 아들처럼 고침 받고 온 집안이 믿었다는 것과는 대조적이지 않는가? (요 4:53)

여기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38년된 병자는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던 인물이 분명하다. 생각을 해 보라!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같은 장소에 누워 병 고침을 받기를 바라던 그를 모를 사람이 있었겠는가? 그가 고침을 받고 일어나 예루살렘 거리를 활동하는것을 본 사람들이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그에게 누가 고쳐 주었느냐고 당장 물었고 결국 그가 예수라는 것을 그를 통해 알아내고 말했다. (요 5:15) 그후부터 예수님은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했다. 생각해 보면 고침 받은 병자가 꽤썸하다.

그러나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하지 않은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신성’ 을 알리는 최초의 사건으로 기록한다.(요 5:18) 요한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권면 하신 말씀을 기록했는데 (요 5:14) (이런 요한의 표현은 8장에도 음행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있었음을 밝힌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 하셨을까? 만약에 병을 고침 받고도 죄를 또 범하면 38년동안 누워있던 병보다 더 심한 병에 걸릴수 있다는 뜻 일까?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와 성도들도 있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요한복음 9장에 제자들이 날때부터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물었을때 예수님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고 말씀하신 것과 상반된다. 요한이 38년된 병자를 고침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선언하고 ‘심판’ 에 관한 주제를 심도있게 다룬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다. (요 5: 18) 사람들은 38년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놀라운 사건에 주목을 하지만 하나님은 38년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다. 맹인이 된 것이 자신의 죄도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처럼 말이다. 우리의 신앙이 자신의 발 밑만 바라 보아서 안된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과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해방 되기 위한 목적일 수만은 없다.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은 ‘심판’에 있다. 지금은 저 멀리 보이지만 그 예정된 ‘최후의 심판’ 을 볼수 있어야 한다. 그 심판의 영광을 위

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때로 아픔도 슬픔도 고난도 환난도 겪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라는 뜻은 더 심한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계속해서 지음으로써 나타날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생각이요 나의 변함 없는 믿음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든지 부인하든지 결국 무덤속으로 가야한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고 말씀하신 이유다. (요 5:28-29)

38년된 병자는 고침받고 예수님께 감사한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배반한 것도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렇게 쓰임을 받은 것 뿐이다.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혹은 배반을 했는지 아니면 예수를 증거 했는지 또 죄를 범했는지에 대해서는 오지랖을 접고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우리는 그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깨닫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하나님은 '심판' 을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